

개의 피부종양 146증례

이소라, 제갈준, 최을수, 이창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 론: 피부 및 피하 종양은 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으로 전체 종양 중 1/3을 차지한다. 국내 피부종양의 발생 양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1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에서 피부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146증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피부종양의 진단은 세포학적 검사 또는 조직학적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결 론: Moulton에 의하면 개의 피부종양은 전 연령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종양이 가장 다발하는 연령은 6년령부터 14년령이며, 종양이 발생하는 평균연령은 10.5세이다. 이 조사의 경우에도 7년령부터 14년령까지 전체 종양의 70.8%가 발생하여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부종양은 성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발생율의 차이를 관찰하기가 힘들었다. 항문주위샘종은 22증례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 개에서 발생하였다. 지방종은 수컷보다 암컷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조사에서 종양이 다발한 품종은 요크셔테리어, 잡종, 시츄, 말티즈 테리어, 푸들이었으나, 외국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푸들의 경우는 종양 발생이 적은 품종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조사에서는 19증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발생증례의 11.9%를 차지한다. 이것은 국내 선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피부 종양에 따라 호발 부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항문주위샘종의 경우 전체 종양 22증례중 16증례가 회음에 발생하였으며, 비만세포종은 앞다리, 뒷다리, 회음부에 고르게 발생하였다. 지방종은 13증례가 등에 발생하였고, 기저세포종은 머리와 등에 발생하였다. 개에 있어 피부종양의 발생수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만세포종, 항문주위샘종, 지방종의 순서로 피부종양이 다발하였고, 호주에서는 비만세포종, 기저세포종, 항문주위샘종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방종, 항문주위샘종, 비만세포종의 순으로 높은 발생수를 나타내었다.

임상적 의의: 국내 피부종양의 발생은 외국에서의 보고들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호발 품종 및 호발 종양의 경우 많은 차이를 보였다.

*Corresponding author: anilover@plaza.snu.ac.kr